

“위로가 필요한 순간, 떠올리는 음악가 되고 싶다”



2024 으뜸인재 <8> 14살에 대입 준비하는 김동혁군

중졸·고졸 검정고시 모두 통과...대학 실용음악과 진학 목표 전국청소년예술제 대상 등 실력 인정 “재즈피아니스트 될 것”

“음악은 저한테 많은 감정을 전달해줘요. 저만의 음악 스타일로, 제가 하고 싶은 말과 생각, 갖고 있는 희망을 다른 사람들과 음악으로 공유하고 싶습니다.”

전남도의 예체능리더(국악·실용음악·재즈피아노) 분야 새천년 으뜸인재로 선정된 김동혁(14)군은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다. 대학 실용음악과 진학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이론·문제풀이와 실기 시험 준비로 바쁘다. 리듬감 있는 반주를 연주하는 ‘컴퍼’ 연주를 비롯, 즉흥 연주 등 실기 연습만 하루 6시간 넘게 한다.

나이로는 중학교 1학년인데, 지난해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을 마쳤다. 올해 4월에는 검정고시라고 교학력 과정까지 취득했다.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다양한 음악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음악적으로 부족한 것도 빨리 배우고 싶었

고요. 대학교에 가면 음악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모두 형, 누나들인데, 같이 음악을 하면서 친해지고 좋을 것 같아요.”

김군은 초등학교 5학년인 12살 때 학교에 ‘정원의 관리자 과정’을 신청하고 스스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됐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방과후 과정으로 빅밴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절 인상깊게 보셨나 봐요. 재능이 있으니 매진해보라고 추천하셨어요. 저도 좋아하는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갖고 싶었고요. 부모님이 응원해주셨죠. 부모님이요? 직업적 관련성 없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부모님이죠.”

또래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낯선 환경. 적응하기 쉽지 않을 텐데, 김군은 “재미있는 게 많다”고 했다.



재즈피아니스트가 꿈이라 세계적인 재즈 뮤지션인 허비 행콕을 좋아하고 아련한 색소폰 선율이 인상적인 ‘Se.le.ne’ (3인조 그룹 디멘션)를 즐겨 듣는다.

“재즈는 ‘자유로운 즉흥 연주’가 특징이잖아요. 피아노를 배우면서 클래식보다는 그쪽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더 잘하는 것도 같고요.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해외로 가 전문 분야에서 더 많은 음악을 접하고 싶어요.”

집에 장식용으로 ‘전시’돼 있던 피아노에 관심을 갖게 된 건 4살 때라고 한다. 피아노 학원에 가고 싶어 동네 하나 뿐인 학원을 6살 때부터 갔는데 지금까지 매일 건반을 두드린다고 한다.

자연과 가까운 곳에 살고 싶다는 엄마 뜻에 따라 서울에서, 광주로, 다시 마당 넓은 화순으로 오면서 삼촌이 쓰던 피아노를 시도 때도 없이 쓸 수 있게 된

점도 피아노에 빠져드는 계기가 됐다.

입시 준비만 하는 건 아니다. 틈틈이 콩쿨에도 나가 제 3회 전국청소년예술제 대상(2023년·초등부), 제 2회 전남청소년예술제 최우수상(2023년·초등부), 서울실용음악과 무지콩쿠르 보컬·기악 부문 최우수상(2022년·초·중등부)을 탔고 제 1회 한국실용음악콩쿠르(2024년·고등부)에서는 본선 진출의 기쁨도 맛봤다.

공연도 10살 때부터 꾸준히 출연했다고 한다. ‘2024 국제재즈데이 in 화순’, ‘2023 남도재즈페스티벌’, ‘2023 6·25전쟁 제 73주년 행사 식전공연’ 등 최근엔 매월 2-3차례 무대에 오른다고 한다.

“한 번 무대에 오르면 3-4곡 연주하는데, 관객들에게 피아노 소리를 들려주는 게 좋아요. 기본 좋을 때 들으면 더 흥을 나게 하고 우울할 때 들으면 위로를 받는 듯한 음악, 그런 음악으로 관객들과 공유하는 게 좋습니까.”

전남도의 으뜸인재로 선정되면서 입시에 필요한 레슨, 콩쿨 참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데다, 혼자 열심히 해온 음악에 대한 열정을 인정받았다 는 자부심도 크다고 한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음악, 작곡, 연주로 다른 사람들과 희망, 기쁨을 공유하고 위로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떠오르는 음악가이고 싶습니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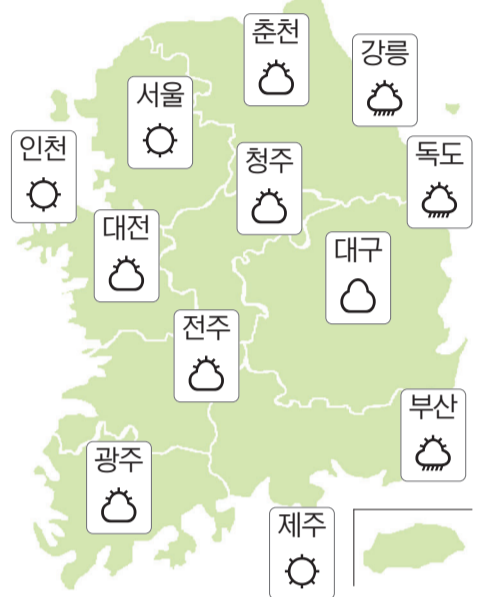
해돋이	06:04	달뜨기	01:51
해질	19:02	달짐	17:09

찜통더위

최고체감온도 35도 내외의 무더위 이어지겠다.

광주	구름많음	24/34	보성	맑음	22/34
목포	맑음	25/32	순천	구름많음	25/35
여수	구름많음	26/34	영광	맑음	24/32
나주	맑음	23/33	진도	맑음	24/31
완도	맑음	24/35	전주	구름많음	24/34
구례	맑음	23/35	군산	맑음	24/33
강진	맑음	24/35	남원	구름많음	23/34
해남	맑음	24/34	흑산도	맑음	25/30
장성	구름많음	23/34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0.5~1.5	0.5~1.0		
	면바다(북)	1.0~2.0	1.0~2.0		
	면바다(남)	1.0~2.0	1.0~2.0		
남해 서부	앞바다	0.5~2.0	0.5~1.5		
	면바다(서)	1.0~2.5	1.0~2.0		
	면바다(동)	1.5~3.5	1.0~2.5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5:20	17:00	11:20	-:-
여수	01:28	12:51	07:00	19:38

◇생활지수

미세먼지	좋음
------	----

◇주간 날씨

31(토)	9/1(일)	2(월)
☀	☀	☀
22/33	23/32	22/30
3(화)	4(수)	5(목)
☀	☀	☀
23/31	23/31	23/32



우당 이윤로 세무사 광주교대 발전기금 쾌척

광주사범학교 졸업생인 ㈜우당 이윤로 세무사가 지난 28일 광주교육대학교(총장 허승준)에 대학발전기금 2000만 원을 쾌척했다. (사진)

이날 기탁식은 광주교육대 대회의실에서 총장과 교수, 제14회 광주사범 재경기 동문회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씨를 대신해 참석한 제14회 광주사범 재경기

동문회 김요식 회장은 “이번 발전기금 기탁이 광주교대가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최고의 교원양성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사범학교를 나와 세무사의 길을 걸어온 이 씨는 선교사 교회, 고항마을 등 다양한 자선활동에 참여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여대 일본 양궁협회 초청 행사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는 최근 일본양궁협회 다나카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교류를 위한 초청 행사를 열었다. (사진)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28일에 진행된 일본양궁협회와의 MOU 이후 후속 교류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일본양궁협회 다나카 노부카네 이사장, JOC 엘리트 아카데미 아라이 타케미 감독, 와카야마현

양궁협회 모리 츠요시 이사, 아리코 그룹 김철민 대표이사, 스포츠학과 기보배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행사 후 광주국제양궁장을 방문해 한·일 양궁 교류대회를 참관했다.

이 총장은 “마음 나눔을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의 양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년 퇴임 지혜련 동강대 교수, 간호학과 발전기금 기탁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간호학과 지혜련 교수가 최근 정년 퇴임식에서 30여 년의 교직생활을 마무리하며 학교와 간호학과를 위한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동강대 제공)

최지숙 아름다리 대표이사 광주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최지숙(사진) 농업회사법인(주)아름드리대표이사가 사랑의열매 개인고액기부자 모임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광주 179 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최 대표는 광주 57호 회원인 김성진(주와이마트물류 대표이사)의 배우자로 광주에서 23번째 부부 아너소사이어티가 탄생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31 FAX 062-222-4938, 222-4918

알림

-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문상담,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 의원=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

- 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 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람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업권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요일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플랫폼장학희망자 교육생 모집=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수시모집, 5-6명 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플랫폼장학동호회 062-511-0030.
- ▲산청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산청동 대광로제비마을

- 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 ▲시니어물러나지도사(자격반) 모집=사·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부 010-5522-9700.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 모집=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 ▲시립산수도서관 생활문화동아리 한글 서예반 회원모집=한문서예·문인화·한글서예 동아리 ‘서사모’ 2005년도 창립, 매주 화요일 4-6시, 회비 무료 010-3636-6410